

"너무 빨리 알려져 방향...대가들 그림서 답 찾아"

December 18, 2019 | 전지현 기자

"너무 빨리 알려져 방향... 대가들 그림서 답 찾아"

스타 작가 문성식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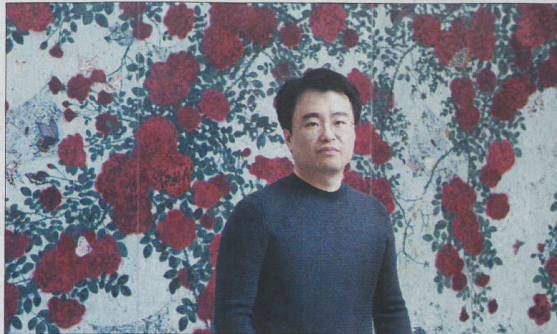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연소 한국관 작가로 두각
창작 고통에 시달렸지만
정선·고흐 작품에서 영감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전시장 벽에 장미가 만발했다. 피처럼 붉거나 화사한 분홍색 등이 다채롭게 캔버스를 장악했다.

개인전 '아름다움, 기묘함, 두려움'에서 만난 문성식 작가(39)는 "2년 전 장미에 매혹돼 직접 키우면서 관찰했다. 벌레와 나비가 꼬여 욕망대로 살고 있는 꽃 안은 세계의 축소판이었다"고 말했다.

겉보기에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살미 역시 비바람을 견디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 작가의 인생도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에 최연소 작가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이후 유명세가 버거웠다. 국내 우수 화랑인 국제갤러리 전속 작가가 되어 2011년 '풍경의 초상' 개인전을 연 뒤 오랫동안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베니스 비엔날레가 끝나고 밀전이



벽화처럼 붉은 장미를 그린 그림 '그냥 삶' 앞에서 있는 문성식 작가. (사진 제공=국제갤러리)

없는 상태에서 국제갤러리 전속이 된 뒤 위태위태하게 여기까지 왔다. 한 번은 겪어야 하지만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가로 불렀다. 향나무, 집엽수, 정원 시리즈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당시 많이 그림 수도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내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까지 몸부림의 결과물이 이번 전시에 걸려 있다."

그의 특기인 정교한 연필 드로잉을 토대로 다양한 실험작을 펼쳤다. 검은 바탕에 젓소(석고)와 아교(혼합물)를 바른 뒤 칼과 송곳으로 떼어내 오래된 벽화 같은 질감을 낸 장미 연작 '그냥

삶'. 유화 바탕을 연필로 긁어 그린 '그저 그런 풍경'(2017~2019) 연작, 다양한 목련 자세를 담은 구아슈(물과 고무를 섞어 만든 불투명 수채 물감) 드로잉 연작 '물의 조각' 등은 오랜 번민이 결실이다.

그는 작업이 갈 길을 잃었을 때 동서양 대가들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우선 장미 그림 '그냥 삶'은 겸재 정선과 15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벽화,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선이 그린 매화를 보고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선 미학은 보리굴비 맛이다. 서

양화를 전공한 나를 통해 그 맛이 재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벽화 질감을 내기까지 3년 걸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작 24점은 여성 성기에 고통을 담은 프랑스 출신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 영감으로 포르노 이미지를 붉게 그렸고,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영감을 받아 어릴 적 친척들과 낚시 가서 본 은하수를 '별이 빛나는 밤'에 담았다.

"부르주아는 할머니가 되어 성공한 예술가다. 그에 비해 나는 내공을 쌓을 시간이 너무 없었다. 영 아티스트(젊은 예술가)를 띄우는 분위기에 올라타게 되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다. 고흐 예술의 정수는 아이다움, 솔직함, 순수다. 그의 그림 선(線)의 싱싱함에 매료돼 흉내 내고 싶었다. 인류 자산에서 수혈하고 싶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꿈림'이다. 태생적으로 인간사와 주변 만물을 연민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처음 미술계에 진입하면서 이리저리 휘둘렀지만, 나의 주제의식은 변한 게 없다. 보편적 주제가 진실이다. 고민이 깊었기에 앞으로 덜 힘들게 그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춤을 추듯이 선을 그려야 안 힘들고 계속할 수 있다." 전시는 31일까지다. (02) 735-8449 전지현 기자